



17-18일 쇠소깍과 하효항 일대에서 제17회 쇠소깍축제가 열린다. 17-18일 쇠소깍에서 테우체험과 카약 등을 즐기는 관광객들 18일 쇠소깍축제 공연장.

한리일보DB



제주 핫플레이스 (51) 제17회 쇠소깍축제

제10호 태풍 크로사(KROSA)가 일본 열도에 상륙한 15일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고, 제주섬은 오랜만에 잔뜩 흐린 날씨를 보였다. 그렇게 태풍이 잠시 더위를 식혀주는 듯 했지만 제주도 남부에 발효된 폭염주의보는 요지 부동이다. 다행히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제주의 여름이 다음주부터는 한풀 꺾일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나왔다. 사실상 이번 주말이 여름나기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말이다. 때마침 제주 여름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축제도 기다리고 있다.

담수와 해수가 만나 깊은 웅덩이를 이루고 계곡을 만들어내 명승(제78호)이 된 쇠소깍과 국가어항인 하효항 일대에서 17-18일 제17회 쇠소깍축제가 열린다. '레저 그리고 체험'을 주제로 마련한 이번 축제는 레저와 체험을 한꺼번에 맘껏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쇠소깍의 에메랄드 빛갈 물 위에서 유유자적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테우 체험과 나룻배 체험, 쇠소깍 열차, 제트보트 행사가 진행된다. 축제장을 찾는 가족들을 위해 어린이 사생대회와 딱지왕 선발대회, 여자 팔씨름 대

회, 실버댄스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쇠소깍축제는 연인들이 더위를 잊고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공연도 선보인다. 17일 저녁 사우스 카니발 공연이 펼쳐지며, 공연 후에는 쇠소깍 해변에 줄지어 앉은 벤치에 의지해 '한 여름밤 바다

17-18일 쇠소깍·하효항 일대 개최 테우체험·쇠소깍 열차·팔씨름 등 레저에서 체험까지 즐길거리 풍성

와 별'을 바라보면서 낭만을 만끽할 수 있다. 축제장에서는 아이와 부모가 같이 물수제비를 즐길 수 있는 물수제비 왕 선발대회도 진행된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쇠소깍의 조약돌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전통 해녀복 체험과 드론 체험장, 감귤 먹기, 쇠소깍 가요제, 소방체험, 페이스페인팅, 에어바운스 수영장 같은 체험과 즐길거리가 풍부하다. 18일 오후 6시 30분부터 하효항 내에 설치된 특별무대에서는 쇠소깍 가요

제도 개최된다. 도립서귀포합창단의 소프라노 이채영과 바리톤 이승수의 쇠소깍 가요제 사전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호돈연합청년회(회장 강두식)가 주관해 열리는 쇠소깍축제는 지역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축제답게 마을단체가 함께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현종진)는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모두 모여 소원을 적어보는 소망등 달기 행사를 개최한다. 소망등은 그 자체로 남다른 의미를 주지만 쇠소깍을 촛불로 밝혀 또 다른 여름밤의 풍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자치위원회 전체가 참여하는 '호돈동 찬가' 공연도 준비 중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고종림)는 축제 기간 나눔을 주제로 한 캠페인도 전개한다.

축제가 열리는 서귀포시 호돈동의 원래 명칭은 소(牛)가 누워 있는 형태라고 해서 '쇠돈'이었다. 제주어사전 설명에 따르면 쇠소깍은 호돈천 하구에 있는 소(웅덩이, 沼)라고 해서 쇠소라 불려지고 있으며, 쇠소의 마지막이라고 해서 맨마지막이라는 뜻의 '깍'이 붙었다고 한다. 담수와 해수가 만나 만들어진 하천지형에 깊은 수심과 웅암으로 이뤄진 기암괴석, 울창한 소나무숲이 조화를 이뤄 절경을 연출한다. 2011년 국가지정문화재(명승)로 지정돼 여름 추억을 쌓기에 손색이 없는 곳이다.

표정준기자 sjpyo@ihalla.com

제주바다와 문학 (17) 양중해의 시 '파도 소리'



파도치는 바다. 양중해 시인은 고요한 수평선 안의 파도를 제주도 사람들의 기쁨과 눈물, 삶의 맥박이 쉬임없이 고동치는 모습으로 읽었다.

“오오, 세찬 숨결과 삶의 맥박 뚫는다”

59년 등단해 시집 세 권 남겨 수평선 안에 사는 섬의 속명 바닷가에 나누끼는 청춘으로

시인은 고향 제주도 사람들을 두고 '수평선 안에서 산다'고 노래했다. '까마득한 옛날부터/ 한라산의 발치라면 어디에라도 터를 잡고/ 수평선을 등지면 한라산/ 한라산을 등지면 수평선'인 이 섬에서 길거나 짧은 한 평생을 살다 간다.

제주바다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은 아름답고 고요해 보이지만 거센 파도가 꿈틀대고 있다. 시인은 그 파도를 제주도 사람들의 기쁨과 눈물, 삶의 맥박이 쉬임없이 고동치는 모습으로 읽었다.

1955년 제주에 머무는 동안 고인과 인연을 맺었을 박목월이 '유자에는 그분의 향취가 난다'고 했던 양중해 시인(1927~2007). 오늘날 애창되는 가곡으로 손꼽히는 '떠나가는 배'의 노랫말을 썼던 그의 시에는 일찍이 파도가 쳤다.

1959년 '사상계'에 작품을 발표하며 문단에 발디딘 그는 세 권의 시집을 남겼는데 두 번째 '한라별곡' (1992)은 첫 시집 수록작 상당수를 다시 묶었다. 시를 활자화시키는 일이 부담스럽다고 했던 과작(寡作)의 시인이지만 시편 곳곳에 섬의 무늬가 그려졌고 그는 때때로 그걸 '속명'이라 불렀다. 첫 시집 '파도' (1963)는 그 시작을 보여준다. 훗날 '수평선' (2004)에서 바다를 끼고 사는 이 땅을 두고 '선택이 주어지지 않

는/ 한정된 우주이다'라고 읊었던 바, 그 전조가 읽히는 시집 맨 앞장의 서시(序詩) '파도소리'는 당시 30대였던 시인의 제주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어지러운 저갯가 이 한 밤을 마지막으로 날아보는 한낱 티끌처럼 덧없는 있음들의 슬픈 대열(隊列) 속에 스스로의 간여린(가녀린) 목숨을 휘어잡고 불안스리 설레는 한바닷가에 때 묻은 옷자락과 그늘 비긴 청춘을 나누끼고 서면 오오, 오오, 무수한 혈연(血緣)들의 세찬 숨결과 맥박의 진동!'

제주에 사는 청춘은 흔들리고 있다. 바닷가에 나누끼는 청춘에선 고뇌하는 이미지가 그려진다. 그의 시에서 자연은 그저 묘사의 대상이 아니라 '매개물로 존재'하며 '외적인 의미를 형성' (김병택)한다.

파도 소리는 '잡잡히, 찰작 찰작, 낭랑히, 쉼쉼히, 황황, 간지러운 소리, 미끄러지는 소리, 밀려드는 소리, 허물어지는 소리'처럼 여러 개의 표정을 지녔다. 그것은 깊은 밤의 자장가, 저녁길의 만가, 식민지의 민요, 노동강변 버들 아래 젊음이 우는 소리, 수 없는 영혼의 얼굴들에서 피어난 진한 애환의 목소리로 들려온다. 그 술한 소리들엔 '신도 사람도 버린/ 황폐한 지역' ('폐고' (廢故))이 되어버린 제주4·3의 '악몽'도 스며있다. 이 섬을 벗어나고 싶은 이들은 수평선을 넘기 위해 이어도를 찾아 배를 띄우지만 수평선은 다시 밖으로 물러서 ('수평선') 버린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기획보충보형 2억원 가입 업체

일반여행업 247호(늘푸른), 79호(누리)

제주직항 장가계 특집

4박5일 매주 월요일 출발
9월 2일, 16일, 23일, 30일
10월 7일, 14일, 21일

5일 999,000원
 *중국 단체비자 발권으로 출발일 10일전 상품 마감됩니다.

포함사항 : 국제 항공료(TAX+유류할증료), 숙박료(2인1실), 식사/운송/입장료, 가이드/기사 비용 및 봉사료, 여행자보험료, 단체비자비용. 불포함사항 : 개인비용, 선택관광, 부가세(VAT)

예약문의 늘푸른여행사 T. 726-3344 | 누리여행 T. 758-5400